

등록번호/라-6763
 발행일/1996년 1월 10일
 등록일/1994년 8월 25일
 발행인 및 편집인/이경숙
 인쇄인/정종화
 발행처/한국여성민우회
 100-39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전화/269-5763~5

함께 가는 여성

1996
1

통권101호



**희망찬 새해
 맞으소서!**

- | | |
|---|---|
| 2 더불어 한걸음씩 · 95년 돌아보기와 96년 내다보기
'홀어짐'과 '모아짐'으로
한별의 옷이 만들어지듯 | 12~13 그때 그시절 · 민우회이야기 ⑦ 사회부 활동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려 한
힘있는 실천 |
| 3 함께 가는 사람 사람들 · 이은영 고용평등추진본부 대표
"고용평등을 향해 어깨 걸고 함께 갑시다" | 14~15 회원활동 · '95 제2기 「어린이 방송학교」
하얀 눈속에서 나눈 텔레비전 이야기 |
| 4~7 특집 · 지회활동이야기
우리네 살림을 들여다보면... | 16~17 상담소 · 외도상담 분석
외도, 건전한 가족문화의 걸림돌 |
| 8~9 보고 ·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95 여성계 10대 뉴스
한해를 풍성히 채운 여성운동의 열매들 | 18~19 생활협동사업부 소식
안녕하세요? 민우회 생협입니다 |
| 10~11 문화마당 · 대학로 문화공간 소개
불거리 가득한 문화의 거리 | 20 알림마당 |

이 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홀어짐'과 '모아짐'으로 한벌의 옷이 만들어지듯



이 경 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공동대표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하시고 풍성한 병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우회 후보의 지방의원 전원 당선을 위해 힘모아 일했던 95년을 보내고 나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을 해냈다는 안도감에서부터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에 이르기까지 여러 생각들이 교차되지만 고통스러웠던 만큼 발전이 있었다는 그간의 민우회 경험이 한편으로 마음을 가라앉게 합니다.

고통이 때로는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성숙하게 극복하면 발전의 밑바탕이었음을 피부로 내내 느낀 민우회 생활이 아니었던가요. 수많은 가위질과 박음질이라는 '홀어짐'과 '모아짐'의 과정을 거쳐 한벌의 옷이 만들어지듯 우리는 일하는 영역이 다르고 지역이 달라 도 힘을 합쳤기에 '생활정치'라는 한벌의 옷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정치란 일상적 삶을 정치화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정치가 별건가'를 노래부르며, 우리의 대리인들을 가장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그곳에 모험적으로 보냈습니다. 최수복 차림의 두 전직 대통령을 보며 현실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도 우리의 대리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리의 화인에 밀가루 세례를 퍼붓는 시민이 있는 저편에 '호주머니 털어 먼지 안나는 사람 있나' 하는 도덕 실종현상이 공존하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동네 구멍가게에 갔더니 구불거리는 거리에나 설치되어 있을 법한 거울이 눈에 띄어 '웬 반사경?'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 도둑' 때문이라는 주인 아저씨의 대답에 아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인의 눈을 피해 '슬쩍' 한 아이에게 '왜 그랬니?' 물으면 '그냥 먹고 싶어서요'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며 다시 이 가게를 찾는다는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먼지 안나는 아이들'로 확대되는 듯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

조직이 커지면

구성원도 다양하고

관심영역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심영역별, 지역별로 흩어져서

뜻을 같이 세우고 동료애를 나눌 때

민주적 조직, 자율적 조직,

온화한 조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홀어짐'만 있으면

미완의 작품으로 끝나기에

우리는 '모아짐'의 과정을

밟아야만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대리인들은 비리의 경험도 없고 정보도 부족해서 비리를 잘 캐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깨끗한 생활정치' '따스한 민생정치'의 모범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밟아오는 새해부터 이들 대리인과의 체계 있는 공조체제를 잡도록 해야겠습니다. 또다른 근사한 옷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가면서 생활정치가 빛을 발하도록 멋진 설계도를 그려나갑시다.

지역에서, 일터에서 우리 여성이 주인 노릇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요소를 찾아 고치고, 때로는 예방활동을 하는데 신나게 한해를 보내야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민우회 활동의 기본 토대가 되는 생협식구를 1천명 확대하는데 열과 성을 쏟았으면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경험자가 이웃에 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 식구가 늘어나면 '생활자치' 할 역량이 커져 훨씬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자들의 물량을 더 많이 소화할 수 있어 생산기반도 안정될 수 있겠지요. 이는 곧 공급의 서비스 개선과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터이고 그 장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새식구와 함께 각 지회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여성운동의 지평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커지면 구성원도 다양하고 관심영역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심영역별, 지역별로 흩어져서 뜻을 같이 세우고 동료애를 나눌 때 민주적 조직, 자율적 조직, 온화한 조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홀어짐'만 있으면 미완의 작품으로 끝나기에 우리는 '모아짐'의 과정을 밟아야만 합니다.

힘을 모으고 한 목표로 통일한다면 우리의 영향력은 사회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민우회 회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96년 병자년에는 이 '홀어짐'과 '모아짐'의 과정을 통해 개인적으로, 조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용평등을 향해 어깨 걸고 함께 갑시다”

새해가 밝아 벌써 첫주가 지나고 있다. 병자년을 여성의 해로 만들자는 여성계의 굳은 의지가 차근차근 드러날 듯한 느낌을 갖고 여성 지위 향상의 토대라고 볼 수 있는 고용평등 활동의 중심이 될 고용평등추진본부의 이은영 공동대표를 만났다. 지난해 10월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여성민우회 사무직여성부를 비롯한 여성계의 오랜 노력 끝에 탄생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고용평등추진본부에 대한 기대만큼 두근거리는 만남이었다.

● 먼저 선생님께서 여성운동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그 동안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75년도에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 간호사들의 생활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독일 여성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우리 여성들은 가족들에게 돈을 더 보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지요. 남동생의 학비를 위해, 가족의 생활비를 위해 먼 이국땅까지 와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가정과 사회에서 이중으로 착취당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고민하고 여성문제에 대해 의식화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77년도부터 몇몇 여성학자들과 여성학 연구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전공한 법학과 관련하여 ‘법 여성학’ 분야를 개척해나갔습니다.

● 지난 해 10월 고용평등추진본부가 만들어졌는데 올해의 본격적인 활동계획은 무엇인가요? 중점사업을 정리해 주세요.

각 직장내 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모니터 활동을 통해 회사별 평등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할 것이고요, 95년 하반기 대졸자 채용부터 입사시험이 면접위주로 나가면서 학력파괴, 여성우대라는 선전까지 들먹여지는데 결국 면접이라는 주관적 방식을 통해 여성을 배척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감시하여야 합니다.

여성들의 비중이 큰 생산직 노동, 단순사무업무에서 여성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지, 성희롱 등의 인격경시는 없는지를 감시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인격화하는 행위의 하나인 만큼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일은 여성노동력을 임시노동력으로 만드는 파견노동을 반드시 막아내는 것입니다.

● 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강의하시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이 2차 개정을 거치면서도 아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고평법의 대상은 민간기업인데, 민간의 노사관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그 관계를 법으로 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므로 고평법으로 획일화하여 통제하기는 어렵지요.

고평법이 만들어지고서 결혼퇴직제나 여성의 조기정년 등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87년도 법 제정 후 8년이 지나고 의식변화도 컸지만 기대만큼 빠른 발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익이 대립되는데 평등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고나 할까요. 여성들이 생산성을 높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는 일 또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 고용평등 파수꾼이 모집되어 현장 모니터와 고용평등지수를 산출하는 활동을 펼칠 텐데요. 민우회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부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용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장에 채용된 사람들의 불평등은 물론 채용되지 못했거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불평등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부들은 취업을 원했거나 실제 취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딸이나 여동생이 취업난을 겪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기도 하지요.

노동부의 실업률 통계의 경우 주부를 취업자로 규정하지만 주부와 대졸 미취업자 등은 취업을 원하면서도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실업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이란 교육 정도와 기대 임금에 맞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므로 파트타임 등의 임시직도 실업으로 규정되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주부들을 모니터하여 취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 원하는 경우, 파트타임이나 가내노동 등에 종사하는 경우 등의 정확한 비율을 찾아내야 합니다. 정부는 주부들의 경제적 요구는 못본채하며 남성실업에만 신경을 쓰는 듯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무직여성을 위한 전문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민우회 사무직여성부에 대해 평가와 조언을 하신다면...

현재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위축되는데 비해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여성’이 더욱 강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고요. 민우회 사무직여성부는 그 동안 사업장 내 여성 고용 불평등 문제에 집중해왔는데 이제는 좀더 넓혀서 여성문제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직면하는 사회문제로 알려 남성과 공동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동안의 운동 경험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주부들과의 연대는 필수적이겠지요.

문 수 경 「함께가는 여성」 편집간사



우리네 살림을 들여다보면..

생협활동과 지역운동을 꾸려가는 여성민우회 5개 지회의 95년 한해 살림은 어떠했을까? 그동안의 어려움과 보람,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일까? 모든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지회활동이야기를 각 지회 대표들로부터 들어보았다. — 편집자

다함께 잘해봅시다

김 수 회 강남-서초지회 대표

3년간 지회대표로 활동하였다. 대표를 맡았던 내내, 내게 주어진 어려운 숙제를 해내지 못하는데서 오는 찝찝함과 무거움이 마음 깊숙이 박혀 있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니고 더불어 해야 하는 숙제. 이제 이 숙제를 새로 대표를 맡을 오혜영 회원에게 넘긴다.

애초 지역운동을 이끌어야겠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보다는 생협운동으로 애쓰는 활동가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당연히 떠안은 대표 역할이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한 운영위원들 역시 우리는 민우회나 생협본부와 회원간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현상태만 잘 유지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했었다.

무엇이든 자라나는 것을 보는 건 큰 기쁨이고 보람이다. 더욱이 나의 애씀이 많이 들어간 자라남을 보는 마음은 말해 무엇하랴. 자람이 없는 현상유지란 결국 퇴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오혜영 대표와 이시영, 박혜선 두명의 부대표로 새롭게 시작하는 1996년에는 강남-서초지회가 쭉 자랐으면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우선 몸이 훌쩍 커야 할 것 같아 새해 상반기에는 현재 회원 300여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늘려볼 계획을 잡아놓았다.

쉽지 않은 숙제를 새대표에게 첫번째로 내놓게 되어 전임대표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운영위원을 비롯해 회원 모두가 우리 지회의 숙제로 알고 함께 풀어나가 주면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또 다른 숙제 하나 더불어 활동하는 즐거움을 주는 일. 더불어 활동하는 즐거움을 모르면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물건을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주문하고 공동으로 공급받는다는 일이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건강도 좋고 환경운동도 좋지만 혼자서 하다보니 힘은 들고 신이 나지 않는다.

더불어 활동하려면 우선 함께 만나야 하는데 회원 대여섯명이 한번 만나는 것도 그리 쉽지가 않다. 만남을 어떻게 이끌어낼까?

우리 강남-서초지회는 지역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이 숨어 있는 곳 같은데, 꼭 막힌 물꼬를 트는데 중심역할을 하게 될 현재의 운영위원들의 특성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본다.

●초창기 열성적인 생협회원이었던 운영위원들로 나이는 40세 전후이다.

●시간을 많이 내서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해 민우회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민우회에 대한 소속감은 강하나 지회에 대한 소속감은 약한 편이다.

●민우회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깊다.

●나이에 비해 막내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

●집안일 말고도 다른 일로 놀상 바쁘다.

●모두 정회원이 되었고, 다시 모두 내년까지 평생회원이 될 예정이다.(평생회원 회비 분납중)

7명의 평생회원이 포함된 운영위원 구성은 우리 지회의 튼튼한 지주 노릇을 하리라 본다. 평생회원은 평생 회원이니까.

올해도 즐거운 만남이 이어지길...

김 인 선 분당지회 대표

모임별 사업평가

역사공부팀 1년 동안 고대사부터 근대사까지 쉬운 교재를 선택해서 15명이 단원별로 발제자를 정해서 순서대로 돌아가며 진행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암기 위주의 역사공부를 해온 우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했다.

재미있는 시간이라 결석이 거의 없었고 매주 만나게 되어서 친목도모에 큰 도움이 되는 모임이었다.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2기 팀이 고대사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PET(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4기 팀이 끝났고 후속 모임으로 STEP(당신도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다)을 공부하며 그 과정에서 민우회에 관한 관심과 흥미가 생기도록 소모임 관리

에 힘을 써야 하는데 다소 소홀했다. 운영위원 중에 소모임 전담반을 만들어 관리를 할 예정이다.

서로 미루다 보면 운영위원들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꼭 운영위원 중에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평가되었다. PET뿐만 아니라 어느 모임이든 팀장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월례회 주제 선정과 강사진은 늘 평이 좋으나 회원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참석하는 회원이 늘 정해져 있었다. 비회원 중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한두번 참석하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 회원 관리와 연락망의 보완이 시급하다.

월례회를 기획하고 홍보 및 성원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일의 분담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왜 잘 안되는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토론해 보아야겠다.

운영위원회 8명의 운영위원들은 역사공부에서 1주일에 1번씩 만나므로 역사공부 후에 수시로 운영위원회 모임을 하는 셈이다.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따로 모임을 가졌다. 역사공부에서 다져진 친목이 운영위원회 모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간담회·소개교육 간담회 5회, 소개교육 13회 실시. 한두사람 몫으로 너무 일이 집중되었다. 올해에는 생협 전담팀이 생겨 생협위원 중심으로 운영위원들이 모두 총 매진할 계획이다.

민우여성학교·환경교육 참석자가 너무 적어서 조출한 분위기였다. 강의내용은 알차고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들로 좋았다고 평가된다. 어떻게 하면 교육장소로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야겠다.

토론회 분당지역의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지역에 여성민우회를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여성민우회의 위상이 지역단체로 크게 부각되었다.

가장 큰 성과는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민우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민우회에 더 큰 애정이 생긴 것 같다. 아쉬운 점은 일의 분배가 원활하지 못했으며 일반회원(생협회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이 아닌 조금 열심히 회원



95년 3월, 월례회에서 분당지회를 소개하는 김연선 대표

들)들은 일에서 제외되어 옆에서 구경꾼 역할에 그쳤다는 것이다.

더 많은 회원들이 골고루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고, 보람을 크게 느낀 좋은 경험이었다. 기회가 주어지면 올해 하반기에 지역 현안 문제 중 다른 주제를 잡아서 토론회를 갖고 싶다.

분당지회는 지회 대표의 임기가 다른 지회와 달리 1년으로 정해져서 운영위원들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부대표를 2명으로 정해서 서로 도와 1년동안 꾸려갈 예정이다. 지난 95년 한 해 동안 힘도 많이 들었고 지치고 후회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가슴이 뿌듯하고 주부로서 15년동안 생활한 중 가장 보람있게 보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1년동안 일하면서 미흡했던 점, 아쉬운 점, 서운했던 점 등을 경험으로 살려 96년 지회를 맡을 새 대표를 열심히 도와줄 것이다. 분당지회는 지난 2년동안 많은 일꾼을 얻었다. 지회 대표를 시작할 때보다 끝내는 지금, 민우회에 대한 나의 애정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춤하고 탄탄해졌다.

1996년 분당지회의 활발한 활동과 재미있는 시간, 즐거운 만남을 기대하며... 분당지회 회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도움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새해에도 민우회에서 웃으며 만납시다.

내가 갖고 있는 보물, 갖고 싶은 보물

홍영주 서대문은평지회 대표

지난 12월 19일, 20여명의 지회 회원들이 모여 함께 어울리며 오랜만에 흥겨운 송년 모임을 가졌다. 회원들이 솜씨를 맘껏 자랑한 호박죽과 각색전 등 음식도 푸짐하였고, 뒤풀이로 간 노래방에서의 노래와 춤은 우리의 걸속을 더욱 다져 주었다.

송년모임 프로그램 중에 회원 각자의 현재 가지고 있는 보물 세 가지와 96년에 갖고 싶은 보물 세 가지를 적는 순서가 있었다. 어떤 회원은 예쁜 눈을 보물이라 자랑하였고 어떤 회

원은 회복된 건강을 자랑하였다. 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보물에 주저없이 나의 가족, 우리 지회 회원, 나의 일이라고 적었다. 이 세 가지 모두 나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기쁨을 주는 존재인 것만은 확실하다.

엄마와 주부의 빈 자리를 메워 주는 친정 어머니와 남편, 말뼉꾸러기이지만 엄마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두 아이들의 지원... 우리 가족들의 배려와 협조가 없었더라면 나의 활동은 분명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9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양해경 선생님이 놀러 오셔서 자신이 <가족과 성 상담소> 소장을 맡게 되었다며 막무가내로 떠다 안겨서 얼떨결에 떠맡은 지회 대표 자리.

머리 속으로는 대중여성운동의 그림이 멋있게 그려졌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전혀 아니었다. 마음을 비웠다 하면서도 일

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 시도해보다가 혼자 상처받고 공공, 일 못하는 사람이 딸기잼 만들다 치질이 생겨 육체적으로 공공, 도대체 누가 등 떠밀며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하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 회원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리라. 막연한 그림으로서의 운동이 아니라, 함께 해나갈 우리 회원들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배운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주부 정서를 배우는 것이다.

어느 소개 교육 장소에서 어떤 주부가 분명 보수를 받고 이런 교육을 할 것이라며 나를 세일즈맨으로 매도(?)했을 때 나는 아니라며 역설하였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경제적인 보수는 없

지만 우리 회원들의 격려가 보수인 것이다. 우리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할 때는 헛수고하는 것이 아닌 좌절감에 빠지지만 회원들의 웃는 모습을 만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까맣게 잊고 만다. 나에게 큰 힘을 주는 우리 회원들이야말로 나의 소중한 보물들이다.

올해에 갖고 싶은 보물 세 가지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사람들 모두의 건강과 늘어난 지회 회원, 더 넓어진 사무실이다. 두번에 걸친 간담회 결과 다정한 얼굴들이 떠오르는 공동체들이 많아졌다. 올해에는 다정한 얼굴들을 좀더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많은 얼굴이 정답게 떠올라지기를 소망해 본다.

이성과 감성을 다모아 부딪쳤던 한해

신 경 혜 노원-도봉 지회 대표

지난 95년 한해는 바로 어제의 일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고 정신없었던 것 같다. 내가 민우회 활동을 시작한 지는 92년 8월이니까 햇수로 5년째로 접어든다. 그중 지난 95년은 나를 포함한 모든 민우회원들, 특히나 노원-도봉 지회 회원들이 가장 바쁘고 힘들었던 해가 아니었을까?

4차례의 민우여성학교, 3차례의 성교육 강좌, 환경교육 등 계속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두 차례의 장터, 또한 의회방청활동, 환경모임, 비디오모임, 글쓰기모임 등 누가 하라고 해서 만든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었다. 꿈처럼 생각되었던 6.27 선거에서의 지방의회 진출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회원들의 그 뜻과 노력, 누가 보아도 사랑과 애정이 없이는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민우회에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모든 강좌마다 전단을 만들고, 포스터를 만들고, 전단을 돌리고, 아파트 입구마다 포스터를 붙였다. 포스터를 붙이려면 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도장 받기도 어렵고, 어떤 단지는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만 붙여 준다고 하고, 어떤 단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저분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못 붙인다고 거절하기도 하고, 우리를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아예 말도 못 붙이게 하는 곳도 있고 진짜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수강신청도 받아야 하고, 인원수가 부족하면 회원들과 이전 강좌의 수강생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강좌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여 수강생을 채우기도 하였다.

운영위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들이 발로 뛰며 몸으로 부딪쳤던 한해였다. 선거과정을 통해 우리 '노원-도봉'은 웃고 울고, 뿌듯해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서로 기대면서 몸살을 뚫고 있었다. 우리는 이성과 감성이 서로 교차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많은 사업 프로그램이 선거 이후로 잡혀지면서 연이은 교양 강좌와 본부에서의 세미나, 공청회, 의정지기 발대식 등 실로 이들이 멀다하고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어지는 호출(?)에 불만이 쌓이고, 짜증도 나고, 이게 뭔가 하는 회의도 생기고, 게다가 무리하게 의회방청까지 해야 했으니 활동 자체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2기 환경팀이 구성되었고, 자녀 글쓰기 지도를 수강한 어머니들이 중심이 되어 글쓰기모임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 하나 자랑스러운 점이 있다면 소리없이 뒤에서 묵묵히 민우회 행사 때마다 환영을 도맡아 주었던 비디오모임으로 지난해 '민우회 활동 소개'에 이어 올해 시사회를 갖게 될 '환경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기도 하다. 밤으로 낮으로 새벽으로 무거운 기기를 메고 다니면서 15분 짜리 작품을 만들기 위해 몇달을 고생한 비디오모임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더불어 새롭게 시작한 <가족과 성 상담소> 사업에 자원봉사해 주시는 상담원 선생님들과, 지회의 모든 일을 함께 논의하고 걱정하며 수고하는 운영위원 여러분과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맡겨주는 지회의 모든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내 나이 마흔으로 접어드는 1996년, 시작부터 큰일을 치르게 되다 보니 또 정신이 없다. 상담소 사업 기금 마련을 위해 1월 20일에 펼쳐질 '열린 가족, 열린 음악회' 준비로 지금도 한참 정신이 없다.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만 갖고 시작한 일인데 시작하고 보니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쪼록 민우회 모든 회원님들 부디 많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원-도봉지회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육심 만큼 커진 지회에 대한 자부심

이 성 미 구로-양천 지회 대표

지 난해는 우리 구로-양천 지회로서는 아주 의미있는 해였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회원들의 힘으로 아담한 지회사무실을 얻고 사무실 유지비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기까지 참으로 정신없이 보내온 한해였다.

사무실을 얻어 처음 한 프로그램이 자녀교육강좌였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고 이때 같이 한 회원들이 지금 핵심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이후 민우여성학교는 장소섭외가 빨리 안되어 홍보도 늦은 것이 문제였고 주제를 너무 다양하게 잡은 것도 문제였다.

글쓰기교실이 학년별로 모듈로 진행되어 회원들 집에서 하면서 지회로 수익금이 들어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비회원 아이들이 함께 하게 되면서 지회로 들어오는 수익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아이들 사물놀이팀을 꾸렸는데 비오는 날 양천공원에 갈 수가 없어 사무실에서 하다가 집주인에게 혼나기도 했다.

수익사업으로 책도 판매해 보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무실 유지비를 마련하는데 급급해서 다른 일은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게 더 큰 문제였다. 결국 안정적인 활동을 하려면 지회를 후원해 줄 후원회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생협회원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 나갔다. 현재 16~17명이 회비를 내주고 있고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시간사가 제대로 없는 가운데서도 바자회에 참여해 생협 가입을 유도하는 설문지를 돌려서 묶는 작업을 하고 장터를 열고 어린이날 생산지견학을 다녀오고, 성교육 공개강좌, 여름방학 특강, 어린이 환경학교와 우리지역 역사탐방, 강화도 기행을 하는 등 설 새 없이 뭔가를 만들어냈다.

여름이 지나고 교육장까지 갖춘 사무실로 이사오니까 당장 격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지금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살아있는 그림그리기와 단소, 국악이고, 회원들은 바른의정모임을 주1회씩 하고 있다.

환경팀을 먼저 꾸렸었는데 모임이 잘 안되다가 마침 프로젝트를 받게 되면서 바른의정모임으로 바꾸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현재 11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9월 중순경부터 주1회 학습모임을 하다가 지난해 11월말 정기회의 방청을 회원들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했다. 정기회의 첫날 민선구청장과 34명의 구의원들에게 격려의미의 꽃을 가슴에 달아줬는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공무원들로부터 감사의 박수를 받고 우리 회원들이 고무되기도 했다.

그리고 12월 초 지역의 다른 여성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는 이런 연대모임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12월 중순경 양천구청과의 간담회는 민우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바른의정모임을 하면서 회원들이 지역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압력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또다른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점에서 정치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하반기에 실시한 주부 환경학교는 지난해 민우여성학교보다 더 사람들이 안왔다. 매체를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인원은 적었지만 지역신문에서 교육내용을 기획기사로 계속 다루어주어 양천구청 환경과에서 좋은 교육을 한다며 추천해 내가 녹색시민위원회 환경오염감시분과 위원으로 2년간 일하게 되었다.

10월 중순경 목동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과다배출되었다는 신문보도가 있고 TV뉴스에서도 몇차례 보도가 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목동 소각장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를 계기로 오랜 증설반대싸움으로 지쳐있는 주민들을 일으켜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별 성과없는 싸움에 기존의 주민대책위 사람들은 너무 지쳐있었고 남아있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운영위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우회가 뭘 해야 되지 않느냐"고. '아, 드디어'. 곧바로 여기저기 다시 전화를 했고 이틀만에 일요일 오전에 소각장 주위를 도는 파켓시위를하기로 했다. 일요일 아침 목동에 사는 운영위원들이 다 나와주었다. 남편과 아이들까지 역시 함께 해주었다. 30명이 모였는데 대부분이 우리 회원들이었다.

2차시위 때 역시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참여했다. 2차시위는 아주 색다르게 머리에는 고깔모자를 쓰고 노란 국화꽃을 흔들면서 유모차 부대위를 따라 행진하였는데, 시위하면 떠올려지는 거친 모습 때문에 참여하기가 뭇하다던 사람들도 TV에서 그 모습을 보고 가도 될 걸 그랬다고 할 정도로 축제분위기가었다.

이제는 '목동 환경을 생각하는 주민모임'으로 연대기구가 구성되었다. 우리 지회도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의 쓰레기정책 자체를 바꾸어나가고 구청의 정책도 계속 지켜보면서 정책대안까지 만들어내는 단체로 제역할을 하고 싶은 바람을 갖고 있다.

새해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와 학교급식의 질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올해 지회의 목표는 지역여성운동체로서 굳건히 뿌리내리기로 잡았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지역도 바꾸어나가는 생협운동이 좋아서 생협 먹거리를 마음으로 먹는 회원들을 많이 확보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지회를 알리고 이를 통해 민우회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회원들에게는 지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이다.

한해를 풍성히 채운 여성운동의 열매들

1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개최 및 한국여성운동의 조직적 참여

UN 주관의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북경에서 열렸다. 올해는 한국에서도 <한국여성NGO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참가하였다. <한국여성NGO위원회>는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 NGO포럼에서 정신대 문제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하루에 두차례씩 전개해서 전세계에서 온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활동들에 힘입어 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서는 전쟁기간중에 행해진 강간은 국가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마땅한 국가적 차원의 배상을 하려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었으며, 성희롱 문제 또한 성폭력의 범주에 성희롱을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별로 마련하여야 하는 강제를 갖게 되었다.

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여인이 2년 동안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던 「여성의 정치참여」는 올 6.27 지방의회 선거를 맞으면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광역의회의 970명 중 여성의원이 55명으로 5.7%를 차지해 1기의 0.9%에서 6배 증가하였고, 기초의회는 4,541명 중 72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돼 1.6%를 차지하여 1기의 0.9%에서 2배 가까이 여성의원 수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성계가 총매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

할당제 도입 - 정치할당제와 고용할당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광역의회에 비례대표제를 도



인기를 모은 한국여성NGO의 문화공연

입하고 비례대표의석을 여성에게 할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의석 중 50% 이상을 여성에게 할애함으로써 광역의회에 여성의원 수가 늘어났다. 또한 정부에서 「여성 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를 선정해 공공부문에서 여성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고용할당제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큰 성과이다. 96년까지 10%, 98년까지 15%, 2000년까지 20%를 공공부문에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일단 여성의 사회진출에 물꼬를 튼 것이다.

4

남녀고용평등의 달 제정

여성계와 노동계의 남녀고용평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과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따라 정무장관(제2)실과 노동부의 공동추진 아래 매년 10월이 '남녀고용평등의 달'로 제정되었다. 남녀고용평등의 달에 노동자, 사용자, 정부, 미디어가 공동으로 남녀고용평등 캠페인과 토론회를 개최한 것, 일부 기업에서 직장내 성희롱 규제 지침을 만든 것은 성과적이었다.



5

「근로자 파견법」 입법을 유보시킴

여성고용불안을 가중시키며 현대판 인신매매라 불리우는 「근로자 파견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측의 움직임에 대해 여연회를 비롯한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 노조의 연대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와 집회 등 기민하게 저지투쟁을 벌여 나감으로써 결국 저지시키는데 성공하였다.

6

보육 및 학교급식 예산 확보

지방의회 선거과정에서 보육 및 학교급식 예산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은 후보들이 많았고, 이 후보들이 당선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 예산과 학교급식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의회활동을 열심히 전개하여 이를 통해 지방정부예산에서 보육 및 학교급식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낳았다.

7

성희롱 항소심 패소

지난해 7월 25일, 누구도 이길 것이라 낙관했던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법정싸움이 결국 원고패소라는 판결이 났다. 이 소식을 접한 여성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부정' '언어도단' '인간성 상실의 부실공사' '법원이 여성을 회롱한 사건' '합법적인 성모독'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렇듯 패소 판결은 사회적 관심을 1심 때보다 더욱 촉발시켜, 실제로 모그룹사들에서 「직장내 성희롱 금지 지침 규정」을 만들게 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 왔다. 또한 수많은 여성들의 진실에 대한 믿음을 깨버린 그릇된 판결로 인해 분노한 대중들은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실천에 하나가 되어 참여하고 있다.



성희롱
법을 해석으로 축소될
수 없는 대량한
피고 피해자이다

성희롱 패소!
인권 말살!
타자성 이 땅의
가면이 없으면
(박찬, 박찬우, 대법원)

역사를 거꾸로 흐르게 만든 사법부의 판결에 남자가 참에 맞았다.

8

서울시 여성발전 기금
60억 책정

서울시에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기금으로 60억을 설정한 것은 여성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고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9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
참여 확대 10대 과제」 선정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한 것은 여성계의 큰 수확이다. 앞으로 중단기 과제로 채택된 보육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방과후 아동지도, 학교 급식의 전면적 실시, 여성의 공직참여 촉진방안 도입, 공공부문의 고용할당제 도입, 모성보호의 사회부담방안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여성 인력 양성체계 확충 및 개선, 여성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 의식 개선 등을 구체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95년 10월 11일 여성인우회를
중심으로 열린 수요시위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민간위로금으로 해결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무산시킴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해 법적인 사죄, 보상을 하지 않고 민간기금을 통한 위로금을 올려 지급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민간위로금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세계 여성들과 민간위로금 반대입장을 공유하고, 계획적인 「민간위로금 반대 투쟁」을 벌여서 결국 일본이 올해 통과시키려던 민간위로금을 일단 무산시켰다. 지난해 12월초 정신대 할머니들이 생활할 보금자리 '나눔의 집'이 완공돼 그나마 할머니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지만 사라지는 역사의 증인들인 이분들의 한은 언제나 풀릴 것인가.

볼거리가 가득한 문화의 거리

정은숙 「함께 가는 여성」 편집위원



이 시대의 진정한 예인 '공옥진' 일인무대

소극장 오늘 (대학로 학림다방 골목)

☎ 762-6036, 763-8538

극단 한강(대표 장소익)에서 노동자를 싣고 가는 아홉대의 버스 연작시리즈 그 두번째 "어린왕자에게 보내는 짧은 그림 이야기"를 공연한다.

그동안 「마지막수업」, 「나마스테」,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등 예술성과 내용성을 고루 갖춘 수작들을 공연해온 한강에서 1996년 들어 처음 내놓은 이번 작품은 파업농성에 한창 열중하는 영철과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는 남편에 대해 이별을 고하는 그의 아내의 이야기이다. 아내가 떠난 것을 안 영철은 혼자만의 여행을 통해 진솔하게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서로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사창가에서 다시 재회한 아내와 같이 그들의 집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면서 이 연극은 막을 내린다.

때 : 1996년 1월 5일~2월 25일

화·수·목 7시 30분

금토일 공휴일 4시30분/7시30분

극단 한강은 그들의 주된 문제의식인 근대성에 입각하여 사회와 해체의 현상을 극복하고 인간성 회복을 염원하는 연극을 계속 기획하고 있다.

어쩌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와 다른 이야기로 외면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이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계층, 계급 중 분명히 우리의 이웃인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오랜만에 남편과 손을 잡고 한번 발길을 돌려보시면 어떠실까요?

예술영화전용관 동송씨네마텍 ☎ 741-3391

영화사 백두대간과 동송아트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예술영화전용관'은 세계각국의 걸작 영화들을 6개월 단위로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영할뿐 아니라 기획영화제 개최, 영화강좌 개설, 영화인 초청토론회, 시나리오 공모 등의 영화관련 이벤트가 항상 입체적으로 열리는 종합문화공간이다.

예술영화전용관은 상영 횟수를 늘리기 위해 필름을 절대로 자르지 않으며 흥행성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품을 내리지 않고 6개월간의 짜여진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자막번역을 날림으로 하지 않으며 영화의 마지막 자막이 끝날 때까지 불을 켜지 않는다.

작품 역시 그동안 우리가 접하기 어려웠던 세계 여러 영화제 수상작, 영화사의 고전들, 현대의 걸작들, 세계 우수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엄선해서 상영한다.

날짜	제목	감독	내용
1/13~2/8	소년 소녀를 만나다 (Boy Meets Girl)	레오스 가락스 (폰네프의 연인, 나쁜 피 연출)	어두운 흑백의 파리. 목적없는 절망적인 삶을 사는 알렉스와 미레이유. 그들의 빗 나간 사랑. 그리고 자살과 이별
2/10~3/14	노스텔지어 (Nostalghia)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회생 연출)	18세기 망명한 러시아 음악가의 자취를 찾아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러시아의 작가 고프차코프.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탈리아에서 그는 고향에 대한 진한 향수를 느끼고 심한 우울증에 빠진다. 그러던중 그는 세계가 망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 혀 있는 도메니크라는 이상한 노인을 만나 게 되는데...
3/23~4/11	거미의 전략 (Spider's strategy)	베르나르도 베루틀루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탕 고, 마지막 황제 연출)	아토마냐니는 2차대전 당시 파시스트 투쟁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아버지의 죽 음의 진실을 찾기 위해 아버지의 옛 동료, 적, 애인을 차례로 만나지만 모두 입을 다 물고 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아들은 차 츨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고...
4/13~5/9	붉은 시편 (Red psalm)	미클로스 안초	혁명의 비극성을 담은 한편의 영상시. 영화사에 전례없는 스타일의 혁명. 우리는 그것을 '안초의 나라' 라고 부른다.

문화예술관 서울 두레 ☎ 765-1871, 3672-1875

문화예술관 <서울 두레>는 우리 전통 문화예술의 맥을 찾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자 대학로에 만들어졌고, 500석의 객석
과 로비에는 간단한 식사와 음료, 어린이 관객을 위한 놀이
시설 및 조형물을 갖추어 편안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창무극의 명인 '공옥진' 일인무대

결춤을 배우던 시절부터 복장고 소리를 듣고 태어나 김연
수에게서 소리를 배워 판소리를 짙짙히 하는 명인임에 분명하
고 일본에 가 최승희에게 신무용도 배웠고 살풀이에도 능한이
라 능수능란한 몸짓을 댈 수 있는 춤꾼이며, 단체생활을 하면
서 국극공연을 한, 창극으로 산전수전을 거친 사람이 바로 공
옥진이다.

여기에 흔히 이야기하는 병신춤의 명인이라 부를 만큼 병신
춤을 재주로 피워냈고 더불어 원숭이, 퓨마 등 동물을 모방한
춤까지 추고 있어 전통 예인이면서도 예술적 표현력에 왕성함
을 보이는 창작인이기도 하다.

이번 일인무대에서도 그녀의 몸 여기저기에 담긴 모든 재주

로 심청전, 흥부전 등을 일인극으로 엮어 노래와 춤, 연기,
모방춤으로 이끌어 관객들로부터 열렬한 찬사를 받고 있다.

때: 1996년 1월 5일(금)~21(일)

월요일 휴관

화수목금: 오후 7시 30분

토일: 오후 4시 30분

'96 두레 어린이 연극잔치 '첫판' 『깨비, 깨비, 도깨비』

광복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일본이 남기고 간 도
깨비를 우리의 얼굴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도깨
비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서우면서도 친근하고 장난끼 많은 도깨비,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의로운 도깨비, 우리에게 꿈과 사랑, 그리고 모험
심을 길러주는 우리들의 도깨비... 어린이 친구들이 직접 찾아
와서 만나보세요.

때: 1996년 1월 9일(화)~3월 3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매주 월요일은 쉬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려 한 힘있는 실천

권 미 혁 회원, 사회부장

여성민우회의 초기 활동은 당시 사회분위기의 영향 등으로 여성문제 전반에 걸쳐 매우 포괄적이었다. 사회부는 특히 정치 사회적 이슈의 즉각적인 실천으로 대응하는 기동성을 발휘하였다. 사회부 활동을 2회로 나누어 있는데, 이번호에는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편집자



"여성노동자를 구제대책 마련 보호하자"
(88년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실천전)

초기 여성민우회는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에서 사회부의 역할은 제반 사회적인 이슈, 즉 정치적인 사건, 건강한 시민이나 국민이라면 알아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가져야 하는 사건들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즉 단순히 여성들의 권익이나 이해관계만을 다루는 여성운동체가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과 책임감을 갖는 여성민우회가 되겠다는 하나의 표현으로 사회부를 두었던 것이다. 때문에 사회부원들도 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배치했다.

사회를 바로 세우려 했던 우리의 의지

이러한 의지는 민우회가 생겨날 때부터의 각오였다. 기존의 여성운동체가 민족과 국가, 그리고 소외받는 민중들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제대로 된 여성운동을 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는 87년도 민주화대투쟁 이후 많은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사회 전반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를 몰아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때이면서 한편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또다시 군사정권이 연장되는 회한의 시기였다.

그럼에도 사회부는 오래 존속하지는 못했다. 사회부가 생겨나게 된 취지는 계속 유지되어야 했으나 민우회는 사회적인 이슈를 알리고 홍보하는 선전체이기보다는 대중을 조직하고 그 대중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운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터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커다란 정치적인 문제들은 당시 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추세였다.

때문에 사회부가 주로 하던 일은 당시의 정치, 경제동향들을 분석하고 그일들 중에 우리 단체가 뛰어들어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내는 것, 사회적인 행사나 이슈들에 사회부원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정도였다. 젊은 성원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토론도 하고 사회적인 부조리에 울분하기도 했었다. 특히 당시 대통령 선거에는 소위 '후보단일화론'과 '비판적 지지론', '독자후보론' 등을 놓고 사회부 내부에서 논쟁하곤 했던 일이 새롭다.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이 생겨나게 된 배경

사회부가 담당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에 밝힐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이다. 이 운동은 당시 출범한지 얼마 안되었던 초기의 민우회를 사회적으로 알리게 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고 시의적절한 기획으로 인해 호평도 많이 받은 의미있는 운동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을 하던 당시의 사회분위기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적인 제반 권리 획득을 위해 곳곳에서 파업 등의 합법, 비합법투쟁들을 벌여나갔던 시기였다. 특히 88년 봄에는 그 어느해보다 많은 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바였다.

문제는 사용자측의 태도였다. 87년에 비해 그만큼 회사측의 탄압도 심해지고 교묘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사대'의 동원이었다.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농성이나 투쟁이 있을 때 회사측은 정당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이었다.

농성현장에 외부의 폭력배나 깡패들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무차별 구타하여 강제해산시키고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성적 희롱까지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회사측은 이들을 구사대(회사를 구한다는 뜻)라는 어이없는 명칭으로 불렀다. 88년에 들어와서는 점점 깡패가 아니라 같은 회사내의 관리직들이나 비조합원을 동원해서 노동자와 노동자끼리 싸우는 것같은 인상을 주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한 예를 들어보자. 부산의 신발제조업체인 국제상사는 총종업원이 2만명으로 다수가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이다. 87년 7월 28일 그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상여금 연 400%, 휴가비 연 100% 보장, 휴가기간 유급 처리, 식당밥 개선, 어용노조 각성하라' 등 16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기숙사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30일 드디어 회사측의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되었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인 1천여명의 농성시위대열에 일당 3만원을 주고 고용됐다는 폭력배 70여명과 회사 관리직원 등 600여명의 구사대가 덤벼들었다. 그들은 망치,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노동자들을 두들겨패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고추가루, 돌맹이를 던지며 돌진해 왔다. 농성장은 어린 여성노동자들의 비명, 신음소리, 돌개지는 소리, 고함소리로 마치 전쟁터처럼 변하는 지경이었고 이 와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생겨나게 되었다.

여성단체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론화

사업주들은 노동자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에 속해있는 고용인 정도로 인식하는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가지고 있는 데다 당시만 해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요구를 기업의 도산을 초래하는 불순한 것으로만 이해하는 분위기가 여서 무조건 탄압을 일삼던 때였다.

더구나 언론이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경찰 자신이 구사대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힘없는 노동자들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런 폭력은 대부분 노동자들의 권리획득을 방해하기 위한 회사측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간부나 노동자에 대한 협박과 회유는 더욱 심하였다.

이에 민우회에서는 여성단체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노동자들의 구사대 폭력문제를 사회에 알리기로 했다. 노동운동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노동자들의 이런 비인간적인 처지와 폭력 사건들을 여론화시켜 더이상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폭력추방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노동자들과 많은 접촉을 가져오던 최영희 부회장의 적극적인 제안이 계기가 되었고 사회부에서 적극 이 일을 받아 운동하

기로 결의하였다.

처음에는 구사대 추방운동을 할까도 했으나 사전 준비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 문제가 구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에 대한 사업자들의 전근대적인 노사관,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 그리고 단순 폭력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희롱, 성폭력도 큰 문제가 된다고 보아 직장내 폭력 추방운동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 속에서 전개된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88년 2월 9일부터 한달간 준비과정을 거쳐 총괄책임은 사회부장이었던 내가 맡고 기획에 박난숙, 홍보 및 자료정리에 김미숙, 폭력이 있는 회사 노동자들의 고발을 맡을 고발창구에 조장하, 각종 대회담당에 최문희, 노동자쪽과의 연대에 김미숙, 여성단체연합과의 협조는 당시 여성단체연합의 간사로 있던 한상실 등이 맡기로 하고 3월 9일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현 구사대 폭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도 발표하였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운동의 취지문을 1,500부 정도 각 단체, 언론사, 노조, 학교 등지에 보냈고 전단을 5천부 정도 찍어 여성노동자 큰잔치, 인천의 노동자 집회, 여성대회 등에서 배포하였기 때문에 언론과 여성단체, 노동단체들의 관심은 매우 컸다.

다음은 당시 3월 10일자 중앙일보의 기사이다.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직장동료, 상사들의 구타, 욕설, 성적 희롱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사대 등에 의한 폭력사태가 날로 심각해지자 본격적인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이 시작됐다. 한국여성민우회(회장 이효재)는 9일 오후 '여성노동자를 구사대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라는 구호를 앞세운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발대식을 갖고 오는 6월말까지 고발창구(313-1060)를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펴기로 했다. ... 이들은 앞으로 여성에 대한 각종 직장내 폭력사건을 널리 알리기 위해 소식지를 배포하고 4월 3일에는 폭력추방운동 중간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구사대 등에 의한 직장내 폭력이 계속될 경우 규탄대회를 열고 6월말 직장내 폭력운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고발창구 등에 접수된 모든 종류의 직장내 폭력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이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운동의 전체일정을 비교적 소상히 짜놓고 추진을 하였다.

우리가 잡았던 운동의 목표는 첫째, 사회에 구사대 및 직장내 폭력의 심각성을 적극 알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활동과 각 매스컴을 적절히 활용할 것, 둘째, 노동자들에게 여성단체의 이점을 살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 그러기 위해서는 고발해 오는 사업체의 폭력이 심각할 경우 항의서한, 항의방문들을 통해 회사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 등이었다.

기간은 3월 9일부터 6월말까지 잡았으나 실제 이루어진 것은 7월까지였다. 처음에는 사회부 단독으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당시 생산직여성부 활동가였던 윤정숙, 최명숙 등이 같이 참여하여 일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TV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은 특히나 어린이들을 위한 열린 미디어 교육을 필요로 한다. 어린이들을 미래의 능동적 시청자로 바로 세우고자 함께 한 제2기 「어린이 방송학교」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 편집자

지난해 시작된 30여 채널 케이블 TV방송과 함께, 곧 다가올 위성방송 시대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눈만 뜨면 물밀듯 쏟아져나오는 많은 정보들과 전문적인 지식들은 우리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세계적 문화수준을 한층 높여주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다양한 영상문화의 홍수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올바른 판단력과 수용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지난 94년에 이어 95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2기 「어린이 방송학교」를 열게 되었다.

'95 「어린이 방송학교」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학년, 고학년반으로 나누어 한반에 6~7명씩 조를 이루고 각 조마다

하얀 눈속에서 나는 텔레비전 이야기

이 주 영 <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 회원



매일매일 좋은 미디어 시청자들

담임선생님이 맡아서 2박 3일을 함께 하였다.

첫날, 사당역에 모여 인원점검을 하면서 들떠있는 아이들 만큼이나 가슴이 설레었다. 한편 걱정도 함께, 2시간 30분 동안 달린 고속버스는 우리를 숙리산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청소년 수련마을 '보람원'에 내려놓았다.

조별로 방배정을 하고 맛있는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특색있는 재미를 정하고는 같이 지낼 친구들 이름 외우기에 바빴다. 점심식사 후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뉘어서 비디오 시청과 강의가 진행되었다.

'미디어 숲속의 사람들' 'TV이야기'

비디오 '미디어 숲속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 속에 TV는 친구처럼 친숙하게 항상 함께 있으면서 멜레야 멜 수 없는 관계로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30만원을 드린다면 한 달 동안 텔레비전을 안 보실 수 있습니까?"란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과 텔레비전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자신들도 바로 그들 중의 하나임을 깨닫게 해준다.

'TV이야기'라는 강의는 TV란 무엇인지, 즉 TV는 사람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과대포장할 수도 있고, 사실을 축소·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초롱초롱한 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일찍 찾아드는 추운 겨울 산속의 캄캄한 밤은 우리들을 더욱 따뜻한 가슴으로 하나되게 해주었다.

둘째날, 담임선생님 주관하에 분반토론으로 진행된 '텔레비전 시청규칙' 만들기는 아이들이 전날 본 비디오 내용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평상시 자신들의 시청습관과 자세를 돌아보고,



5조 화이트의 TV 시청규칙! 너무 많이 보지 않기, 바른 자세로 보기—

앞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시청규칙을 만드느라 열띤 토론으로 반마다 시끌시끌하였다. 자신들이 만든 시청규칙을 멋진 표로 만들어 꾸며서 사진도 함께 찍고.

평소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한 편을 정해 시청감상문을 쓰기도 하였다. 잘 쓴 작품 시상식과 더불어 자신들의 무비판적 시청, 몰입시청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함께 알아본 '광고의 참과 거짓'

다음은 '광고의 참과 거짓' 시간. 광고에서 보여주는 것과 실제 상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광고내용이 정보전달 수단 외에도 과장,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비교해 보는 시간에 아이들은 직접 '빙글빙글 주렁주렁' 제품을 만들어보았다. "앗,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여주는 탐스런 포도송이가 아니잖아!"라며 놀라움 터트린 아이들은 실험 결과가 광고내용과 다름을 통해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진정한 광고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점심식사 후 펄펄 내리는 눈속에서 눈썰매장으로 가는 발길들은 마냥 빠르고 즐겁기만 하였다. 지칠 줄 모르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눈썰매들 속에 아이들은 마냥 깔깔거리고 평평 쏟아지는 눈은 우리를 더욱 즐겁고 신나게 하였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둘째날 저녁시간은 방송학교의 하이라이트인 '본반별 역할극 발표회'였다. 3·5조는 평소의 TV 시청태도를 콩트로 구성하였고, 해돋이조는 직접 광고를 만들어보여주기도 하였다. 예쁜 춤과 노래로 TV의 참모습을 표현한 알라딘조, 학교폭력

추방을 주제로 '경찰청사람들'을 연기한 라이온킹조 등등 어린이들의 지혜와 협동이 맘껏 뽐어나오는 시간이 되었다.

계속 쏟아지는 눈속에서 바람까지 몰아부치는 매서운 밤은 아이들의 환호성과 함께 캠프화이어의 열기로 하얀눈도 흔적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지난 3일 동안 함께 지내며 만든 약속들, 많은 생각들, 우리들 가슴속의 다짐들은 밤하늘 속에 울려 퍼지며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의 주체적 시청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다.

미래를 위한 미디어 교육이 자리잡도록

이미 지배적 환경이 되어버린 미디어 환경은 아직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어린이들의 삶을 규정하는데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어린이들의 생활에서부터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무의식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대중매체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역기능은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디어가 갖는 그 속성 및 특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수용자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디어 교육은 학교교육을 비롯한 정부, 사회차원에서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시행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대중매체 접촉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실천으로 보여주는 교육효과 역시 크다고 생각된다.

이번 어린이 방송학교를 통해 우리 여성민우회(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이 안목있는 미래의 시청자를 기르는 미디어교육의 주체로서 한걸음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었기를 바란다.

시청 감상문

「미디어 숲속의 사람들」을 보고

서울 동자국민학교 6학년 황 보 략

「어린이방송학교」에 참가한 우리들은 보람원에 있는 강당에서 「미디어 숲속의 사람들」이라는 비디오를 보았다. 나는 이 비디오를 보았을 때 TV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처음의 장면은 한 아이가 보행기를 탄 채 TV로 다가가는 장면이었다.

그것을 보니 어쩐지 정신을 빼앗긴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 내용은 보행기를 탄 아이가 조금 더 커서 TV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더 커서 국민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기까지 TV와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었다.

그 사람을 보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야기는 더 이어졌다. TV를 좋아하는 그 청년은 아버지가 되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도 TV를 좋아해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내까지도 그랬다. 그들의 이상한 생활은 인사도 하는 등 마는 등, 이야기도 하는 등 마는 등, 청소도 하는 등 마는 등이었다. 이런 정도까지는 좀 과장되어서 나타낸 것이 아닌가 했지만 나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었다.

다음으로 81명을 상대로 "30만원을 받고 한달 동안 TV를 안 보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중 19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직접 실험에 들

어간 사람은 9명이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작 그렇게 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그 사람들에게 실험에 들어간 기간 동안 어떠했느냐고 물으니 어떤 사람은 문명과 떨어져 생활한 것 같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견디기 힘들어 이웃집에 가서 본 적도 있다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시간을 잘 활용했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대답 중 TV가 생활에 필요하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 결과를 보니 TV는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TV에 너무 푹 빠지면 자신의 생활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외도, 전전한 가족문화의 걸림돌

〈가족과 성 상담소〉에서 95년 상담받은 부부문제 상담 559건(100%) 가운데 185건(33.1%)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우자의 외도상담 통계를 주요 내용별로 정리해 보았다.

— 편집자

외도상담 185건을 남자(남편) 전화인가 여자(아내) 전화인가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본인의 외도 때문에 전화했는가,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전화했는가로 나누어보면 〈표1〉과 같다.

우선 외도상담 내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고의 기준이나 생각하는 방향이 남녀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부부중 일방의 외도의 원인을 주로 성적 갈등에서 찾는 반면 여성은 남성의 기질이나 사회의 바람직하지 않은 성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리고 아내가 외도하면 남성은 즉각 전화를 하는데 비해 여성은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도 오랫동안 참거나 내색하지 않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전화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감안하여 상담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통계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559건(100%)

	본인의 외도	배우자의 외도
남편의 전화	7	26
아내의 전화	8	144
계	15(2.7%)	170(30.4%)

외도상담 총 185건 가운데 본 자료는 외도하는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는 전화상담 내용 126건만을 분석 정리하였다. 다시 말하면, 외도 당사자가 전화한 내용 15건과 그외 분석할 정도의 내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의 특성상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내용 44건을 합한 59건을 제외하고 분석가능한 내용 126건만을 정리, 분석, 통계처리하였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통계(백분율)는 이에 해당하는 126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괄호 처리를 하여 전화 당사자와 외도 당사자를 구분하였고 명수와 비율도 역시 바로 볼 수 있도록 괄호 처리하였다.

(괄호 밖은 명수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1. 외도상황(누가 전화상담하였고, 누가 외도하였는지, 아내인가, 남편인가)

계	남편전화(아내외도)	아내전화(남편외도)
126(100)	19(15.1)	107(84.9)

2. 연령(전화상담한 사람의 연령 및 외도 당사자의 연령)

남편전화(아내외도)		
연령	본인	배우자
20대	0 (0.0)	2 (10.5)
30대	13 (68.4)	12 (63.2)
40대	5 (26.3)	4 (21.0)
50대	0 (0.0)	1 (5.3)
60대	1 (5.3)	0 (0.0)
계	19(100.0)	19(100.0)

아내전화(남편외도)		
연령	본인	배우자
20대	7 (6.5)	3 (2.8)
30대	59 (55.3)	42 (39.3)
40대	27 (25.2)	34 (31.8)
50대	7 (6.5)	9 (8.4)
60대	4 (3.7)	4 (3.7)
불명	3 (2.8)	15 (14.0)
계	19(100.0)	19(100.0)

3. 외도하는 이유

이유	전체	남편전화(아내외도)	아내전화(남편외도)
기질적인 이유	23(18.3)	3(15.8)	20(18.7)
사회적 향락문화	21(16.7)	4(21.0)	17(15.9)
직장관계 업무	11(8.7)	1(5.3)	10(9.3)

직장관계로 별거	2(1.6)	0(0.0)	2(1.9)
부부의 성적 갈등	21(16.7)	7(36.9)	14(13.1)
가족갈등(아들선호)	1(0.8)	0(0.0)	1(0.9)
과도한 기대로 인한 압박감	3(2.3)	0(0.0)	3(2.8)
불명	44(34.9)	4(21.0)	40(37.4)
계	126(100.0)	19(100.0)	107(100.0)

4. 외도 후 외도 당시자 태도

태도	전체	남편전화(아내외도)	아내전화(남편외도)
내색하지 않음	28(22.2)	7(36.8)	21(19.6)
당당하다	21(16.7)	2(10.5)	19(17.7)
사과, 미안한 태도	19(15.1)	5(26.3)	14(13.1)
선물공세, 비위맞춤	4(3.2)	1(5.3)	3(2.8)
부인, 외도 지속	28(22.2)	3(15.8)	25(23.4)
더욱 폭력적	25(19.8)	0(0.0)	25(23.4)
불명	1(0.8)	1(5.3)	
계	126	19	107

5.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관망	전체	남편전화(아내외도)	아내전화(남편외도)
결혼지속	93(73.8)	16(84.2)	77(72.0)
이혼	26(20.6)	2(10.5)	24(22.4)
별거(냉각기)	7(5.6)	1(5.3)	6(5.6)
계	126(100.0)	19(100.0)	107(100.0)

5-1. 결혼지속을 원하는 이유는?

이유	전체	남편전화(아내외도)	아내전화(남편외도)
아이들 때문	52(55.9)	4(25.0)	48(62.3)
경제적 무능력	11(11.8)	0(0.0)	11(14.3)
사회적 편견	5(5.4)	3(18.7)	2(2.6)
부모님 때문	2(2.2)	1(6.2)	1(1.3)
상대 좋은 일, 억울함	6(6.5)	0(0.0)	6(7.8)
배우자 사랑	8(8.6)	3(18.8)	5(6.5)
불명	9(9.6)	5(31.3)	4(5.2)
계	93(100.0)	16(100.0)	77(100.0)

6.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주 영향 2가지 이상

영향	전체	남편전화(아내외도)	아내전화(남편외도)
영향 없음	6(2.4)	0(0.0)	6(2.8)
이성불신	66(26.2)	10(25.0)	56(26.4)
우울한 기분	56(22.2)	8(20.0)	48(22.6)

대면, 대꾸 싫음	52(20.6)	6(15.0)	46(21.7)
자신감 결여	36(14.3)	10(25.0)	26(12.3)
이혼요구 두려움	14(5.6)	2(5.0)	12(5.7)
자살충동	10(4.0)	2(5.0)	8(3.9)
자신도 외도 생각	6(2.4)	0(0.0)	6(2.8)
약물, 알콜 의존	4(1.5)	2(5.0)	2(0.9)
기타	2(0.8)	0(0.0)	2(0.9)
계	252(100.0)	40(100.0)	212(100.0)

7. 배우자 외도 후 본인의 구체적 행동

행동	전체	남편전화(아내외도)	아내전화(남편외도)
가출중(계획중)	2(1.6)	0(0.0)	2(1.9)
별거중(계획중)	11(8.7)	0(0.0)	11(10.3)
자살시도 계획중	4(3.2)	0(0.0)	4(3.7)
이혼수속중	29(23.0)	3(15.8)	26(24.3)
상담, 치료	59(46.8)	13(68.4)	46(43.0)
기타	21(16.7)	3(15.8)	18(16.8)
계	126(100.0)	19(100.0)	107(100.0)

8. 자녀에게 미친 영향

영향	전체	남편전화(아내외도)	아내전화(남편외도)
정서장애	16(12.7)	1(5.3)	15(14.0)
모두 부정적	18(14.3)	1(5.3)	17(15.9)
퇴행행동	2(1.6)	0(0.0)	2(1.9)
대인관계 회피	3(2.4)	0(0.0)	3(2.8)
부모에 무관심	6(4.8)	0(0.0)	6(5.6)
학업에 흥미 잃음	9(7.1)	1(5.3)	8(7.5)
불명	72(57.1)	16(84.1)	56(52.3)
계	126(100.0)	19(100.0)	107(100.0)

전화한 내담자의 숫자만 단순 비교하면 남성과 여성의 외도 비율이 15.1 대 84.9인 것처럼 보이지만(질문1) 통계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아직은 남성의 외도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한 여성들의 고통 역시 남성보다 클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만 본 외도상담 분석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없다.

따라서 외도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외도방지를 위한 연구과제가 앞으로의 본 상담소의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부부관계는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도가 사라지고 건전한 가족문화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부부관계의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활협동사업부 소식



안녕하세요? 민우회 생협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생협에 참여하는 회원은 2,231명이고, 출자금은 74,775,470원,
12월 공급액은 107,724,200원입니다.

공급품목

품 목	단 위	가 격(원)	생 산 지
무농약백미	8kg	22,000	홍성 풀무생협(95년도산 쌀)
무농약현미	4kg	10,500	"
무농약 오분도미	4kg	10,700	"
일반미(저농약)	8kg	17,000	"
현미찰밥	4kg	13,000	"
백미찰밥	4kg	13,000	"
검정콩	1kg	4,800	괴산소협
녹두	1kg	9,500	" 괴산주변 농가에서
보리	1kg	2,800	수집합니다. 산지가격에 따라
서리태	1kg	5,500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수수	1kg	3,800	"
엿기름	1kg	2,500	"
차조	1kg	3,800	"
참깨	1kg	15,500	"
흑임자	500g	8,500	"
완(적두)	1kg	4,600	"
검정완(거두)	1kg	4,600	"
원콩	1kg	4,000	"
이분도통밀	1kg	1,700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백밀가루	1kg	2,000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통밀가루	1kg	1,800	"
유정란(1판)	30알	4,400	홍성 풀무생협
두부	1모	1,300	더불어식품, 국산콩 사용
콩나물	350g	700	"
도라지	300g	1,300	홍성 풀무생협
봉도라지	300g	1,400	"
도토리묵	300g	1,100	더불어식품
순두부	450g	800	" 국산콩 사용
콩비지	400g	1,300	"
녹두면대떡	400g	3,100	"
참쌀가루	1kg	3,800	생협제조 • 냉동보관
메밀가루	500g	3,500	강원도연합회
감자전분	500g	5,000	"
햄	500g	7,000	더불어식품, 방사사육 돼지고기
소세지	500g	5,500	"
제육소세지	300g	3,000	" 방사사육 육계
옛날어묵/버섯어묵	350g/270g	2,500	"
명란젓	500g	9,000	강릉 한살림
창란젓	500g	8,500	"
오징어젓	500g	6,500	"
조개젓	500g	7,000	리화정, 무안산해산물 리화정소금으로 절임
매추무침	500g	2,500	진도 새생명공동체
마늘장아찌	1kg	6,000	서대문-은평 지회
올외장아찌	1kg	8,800	군산 삼학식품
참외장아찌	300g	1,300	홍성풀무생협
고추장	1kg	10,000	민우회
조선간장	900ml	2,500	생협중앙회
조미간장/생포도소스	900ml	5,800	한국미면
홍성된장	1kg	5,000	바른식품
재래된장	2kg	8,000	전희선협
천연조미료	100g	2,000	더불어식품
미강유	1.8l	5,000	김천 삼화유장
발조청	1.2kg	8,000	경주 최영준

품 목	단 위	가 격(원)	생 산 지
현미식초	900ml	1,500	영도식품
간식초	500ml	4,700	해남 모듬살이농장
복은들깨가루	500g	3,500	보은농민회
가래한들깨가루	200g	2,000	"
도토리가루	400g	9,000	"
굵은소금	3kg	1,500	마하담
복은소금	1kg	1,700	"
죽염(1회)	500g	5,000	민속죽염, 식품, 양치질용
죽염(9회)	125g	20,000	" 약용
멸치액젓	900ml	2,000	마하담
새우젓(육젓)	250g	4,800	"
참새우젓	500g	6,000	"
새우젓(오젓)	2kg	12,000	"
멸치액젓	10kg	15,000	"
간지숙젓	5kg	12,000	복포
황석어젓	5kg	10,000	"
참기름	320ml	12,500	보은농민회
들기름	320ml	5,800	"
고추여기름	320ml	4,700	"
복은깨	150g	2,800	보은농민회
태양초 고춧가루	600g	15,000	세한애농회
태양초 건고추	5근	48,000	"
화건 고춧가루	600g	11,500	경북 봉화 방주공동체
화건 건고추	5근	38,000	"
미역	200g	2,300	생협중앙회, 완도
참김	1속	4,500	진도 새생명공동체
파래김	1속	4,300	"
돌김	1속	7,000	"
국물멸치	300g	4,000	" , 진해 해미가게 그릇을 먹고 알뜰
복음멸치	200g	7,100	"
지리멸치	200g	6,900	"
복어새	500g	6,000	영덕 대운식품
대구새	300g	4,800	주문진, 진의 씨지 않은 천연의 맛
황태포	5마리	3,900	대관령, 부산삼회
통복어(황태)	5마리	4,500	"
황태새트(선물용)		26,000	" 새물새트(1마리) 황태새트(1마리) 황태새트(3마리)
오징어(1속)	20마리	17,500	울릉도
갯	140g	5,500	포천농협
대추	450g	5,000	밀양 소망농원
대추(대)	900g	10,000	" , 상자포장
표고	200g	6,000	완주
형지버섯(건것)	300g	20,000	김포산림조합
형지버섯(새트)		24,000	"
고구마당면	500g	3,300	삼원식품
김부각	100g	1,700	거창YMCA
들깨송이부각	100g	2,300	"
들깨송이부각	100g	1,800	"
감자부각	100g	2,200	"
우리밀라면	1봉지	600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전라면	1봉지	600	"
우리밀칼국수	350g	2,500	보리식품(1kg/3,500)
팔팔국수	350g	1,200	"
보리냉면	300g	1,500	"
마른국수	500g	1,600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감자수제비	400g	2,900	더불어식품

1995년 12월 31일 현재
 따르릉 279-5035~7, 전송 266-1207

품 목	단 위	가 격(원)	생 산 지
레남팔가젤	1kg	10,000	레남팔, 두농약(의)회, 무농약(의)회
배젤	600g	5,500	알라 미다안농장
호박젤	500g	3,300	덕천포도원
땅콩크림	400g	2,500	다들여식품
우리밀식빵	350g	2,300	다들여식품
오일식빵/레스젤식빵	400g	2,800	"
옥수수식빵	300g	2,500	" (풍식빵형)
아침빵	2개	2,000	" (통밀빵)
현미빵	350g(7개)	2,500	" (포닝빵형)
보리편빵	350g(5개)	2,500	"
관편빵	350g(5개)	2,800	"
호박편빵	350g(5개)	3,000	"
진립과자/두부과자	130g	1,500	"
들깨과자	150g	1,500	"
우리밀비스켓	130g	1,500	"
우리밀과자세트		11,000	"
우리밀편빵	300g	1,500	충북농촌개발회
밀빵	120g	1,300	홍성 품무생협
약과	18개	3,100	화성한과
반죽밥/옥수수비밥	140g	1,400	강원도연합회
현미찰떡강정	300g	3,700	거창YMCA
들깨강정	300g	3,500	"
매화장수 찐엿	400g	3,000	술진, 매화2리 부녀회
화성유과	200g	3,500	화성유과, 두농약(의)회, 무농약(의)회
떡볶이떡(현미)	600g	2,000	경협(낙원떡집)
편가래떡(백미)	1kg	3,700	" 무농약백미로 만들
보약차	10봉(1상자)	50,000	용래당
꿀삼차	1.2kg	25,000	민우회
생화차	10봉(1상자)	22,000	용래당
구기자 액상차	100ml×30팩	25,000	홍성 품무생협
비섯가루	1kg	6,600	레남팔(보리, 현미, 참깨, 감말종)
산적비섯가루	1.5kg	19,200	화성한과
대장부 꿀(비섯유)	1kg	14,000	"
보리차	700g	1,000	보은농민회
옥수수차	800g	1,700	"
감잎차	200g	3,500	경북 예천
현미차	350g	1,800	민우회
결명자차	400g	2,000	생협중앙회
구기자차	600g	15,500	레남
우리밀차(티백)	15개	950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통굴레차(티백)	5g×12	4,500	지산식품
통굴레차(뿌리)	상자포장	19,000	"
유자차	1.2kg	10,000	민우회, 무농약유자로 만들
매실/사과주스	750ml	2,000	청암농장
(병)포도주스	1l	7,500	덕천포도원(10팩/10,500)
(병)호박즙	1l	4,500	"(10팩/6,500)
매실농축액	1.2kg	25,000	청암농장
아카시아꿀(대)	2kg	32,000	노령(1kg/17,000)
감파출	1kg	16,000	화진
레남과채효소	2l	17,000	레남 모듬살이농장
홍성과채효소	2l	18,000	홍성 품무생협
한삼과채효소	1l	10,000	한삼회
현미식혜	10캔	5,000	한삼식품 (15캔/8,500원)
한삼 청정	10캔	6,000	" (15캔/10,000원)
상치	250g	800	홍성 품무생협
시금치	200g	700	"
냉이	300g	1,300	"
양파	3.5kg	4,500	"
감자	2kg	2,700	강원도연합회
당근	1kg	1,700	제천대농회
약호박 kg당	1kg당	1,000	홍성 품무생협
무	1개	600	"
대파	1kg	1,800	홍성 품무생협

품 목	단 위	가 격(원)	생 산 지
적장마늘	3kg	19,000	제천대농회
생강	200g	2,300	홍성 품무생협
삭힌 고추	300g	1,300	"
노파리버섯	400g	3,200	제천대농회
팽이버섯	80g	1,200	"
간다지	300g	5,600	강원도연합회
생알로에	2.5kg	15,000	홍성 품무생협
외나물/가시알맹이	100g	2,000	제천 덕산신협
매호박고지	100g	2,000	"
흰호박고지	100g	1,500	홍성 품무생협
시래기	200g	1,800	"
무알맹이	100g	1,400	"
고추알맹이	60g	1,300	강원도연합회
완유(말린 밥)	500g	5,000	"
꽃감	60~70개	25,000	연주 동상면 최재옥
옛호도	300g	3,400	보은농민회
북은땅콩	500g	3,200	강원도연합회
사과	4kg	8,000	홍성 품무생협
무농약 굴	2kg	3,800	세주도 완송두
무농약 고령말기	1.2kg	9,500	고령 광해여
얼장굴비	20마리	12,000	양광 법성포
건고물어	2마리	4,000	한림수산
보마갈치	500g	6,500	"
새우살	350g	4,500	"
옥돔살	500g	2,700	"
도미(소)	500g	3,200	"
갈요징어	450g	3,500	"
옥돔	2.3kg	63,000	"
굴비(오가)	10마리	56,000	영광 법성포, 미리 주문해 주세요
굴비(특대)	20마리	38,000	"
외삼고기/장조린	600g	14,000	서양축산, 한우
말치/사태/분쇄육	600g	14,000	"
등심	600g	16,500	"
한삼고기(스테이크)	600g	18,500	"
외갈비(당육)	1kg	12,500	"
외갈비(뽕육)	1kg	22,000	"
패지삼고기/장조린	600g	3,100	"
분쇄육	600g	3,100	" 한생제, 성장추진제를
분짜스	600g	3,800	" 뽕 사료를 먹임
가공분짜스	600g	5,500	"
분수육	600g	5,700	"
삼겹살	600g	5,600	"
복삼겹	600g	5,700	"
돼지갈비(LA)	1kg	9,700	"
돼지갈비(뽕육)	1kg	9,000	"
콩닭	1마리	5,300	서양축산
보약닭	1.2kg	5,600	"
삼계	2마리	8,200	"
홍성 자연닭	1마리	8,800	홍성 품무생협
알로에자연화강수	250ml	12,000	원곡여생협공동체, 냉장보관
자연과	100g	8,000	"
새안제	100g	7,000	"
고재비누	4장	1,000	협성생산공동체
가루비누	1.5kg	2,800	"
주방세제	2kg	4,500	" (500ml/1,600)
욕실세제	2kg	7,000	" (500ml/3,000)
세리온비누	3개	10,000	효창세리온
화장지	50m×10	2,900	부림제지
파티슈	200매 1상자	800	"
바미패	160매	1,300	성진화학
마마손	50매	700	"
국민학생공책	10권	2,500	아시아문화교육연구회
중고생공책	10권	3,500	"

알림마당

한국여성민우회 제9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바람 잘날 없었던 연말이 가고 어느덧 새해도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이 폭넓은 의정지기 활동을 펼치고 생협회원 1천명 확대, 환경, 모니터, 복지사업의 활성화 등 민우회 활동이 보다 전문화될 것입니다. 민우회 정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의 애정과 지해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때: 1월 27일(토) 오후 2시 30분
- 곳: 경동교회
- 총회 주요 내용
 - 환경 비디오 시사회
 - 개회 선언
 - 우리 민우회원은
 - 격려사
 - 성원 보고
 - 의순 채택
 - 의안 심의
 - 1)95년 사업보고 승인
 - 2)95년 결산안 승인
 - 3)95년 감사보고 승인(사업감사, 재정감사)
 - 4)9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5)차입금 한도액 승인
 - 7)정관 및 규약개정
 - 8)임원(공동대표, 이사, 감사) 선출 및 신규임원 인사
 - 회원 상견례
 - 회원 수상
 - 평생회원 감사패 증정
 - 다함께 다과회

노원-도봉 <가족과 성 상담소> 기금 마련을 위한 "열린 가족, 열린 음악회"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들 세상을 가꾸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열린 가족, 열린 음악회"에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 때: 1월 20일(토) 저녁 6시
- 곳: 미도파 상계점 메트로홀
- 공연내용
 - 피아노 트리오 연주
 - 소프라노/ 지혜련
 - 플루트 3중주
 - 비브라폰 연주
 - 살풀이춤/ 임수정(중요 무형문화재 전수자)
 - 「사람과 나무」
 - 안혜경, 권진원, 유열, 어린이 합창
- 문의: 999-9221, 991-3657
김연순, 김인숙

제2기 보건복지부 위탁 성폭력상담원 교육

<가족과 성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대책을 고민할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성폭력상담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 때: 1995년 2월 5일(월)~2월 16일(금) 2주간
오전 10시~오후 5시(총 64시간)
- 곳: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 교육장
- 대상: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사회학, 법학, 간호학, 기타 이와 유사한 학문 전공자(20명 선착순)
- 수강료: 90,000원(교재비 포함)
- 문의: 646-8858~9 유경희 교육부장

<생협> 새로 나오는 물품입니다

- 고령 딸기 (9,500원/1.2kg 1상자)
 - 생산지: 경북 고령(과해석)
 - 품종: 여홍(딸기모양, 빛깔, 맛이 아주 특별하고 끝물까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함)
 - 생산과정: 벌을 매개로 수정하기 때문에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산발효퇴비를 만들어 사용하고 청정수로 재배합니다.
 - 공급시기: 1월 9일부터
- 꽃감(25,000원/60~70개, 1상자)
 - 생산지: 전북 완주군 동상면(최재옥)
 - 생산과정: 산감을 따서 자연건조하였습니다.
 - 보관방법: 냉암소(영하)에 보관하세요.
- 생알로에(15,000원/2.5kg, 줄기 큰 것 3줄기 정도)
 - 생산지: 홍성 풀무생협(박민수)
 - 생산과정: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발효퇴비만으로 재배하였습니다. 8년생 이상된 알로에로 밑부분에 약이 착한 부분만을 공급합니다.
 - 복용법: 약 1주일 분량으로 2주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내복횟수는 1일 4회가 정상으로 밥먹기전과 취침 전에 1회 복용하고 1회의 양은 기준넓이 10cm인 것을 2~3cm 잘라서 껍질을 벗기고 복용합니다.

12월 공동체별 매출순위

순위	공동체	대표자	매출액
1	아름마을 건영아파트	박현자	1,824,300
2	낙성대 교수아파트	김현숙	1,796,500
3	고척 센쥬리아파트	안경순	1,489,200
4	일원동 현대아파트	이기자	1,370,600
5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김미정	1,268,500
6	거여동 현대 2차아파트	조혜정	1,194,900
7	홍제동 청구아파트 103동	정영해	1,177,450
8	상계 주공아파트 6단지	김숙희	1,111,100